

한국고분자학회 창립 20주년 회고

김 정 업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고분자연구부

IUPAC MACRO '96 SEOUL이 8월 4일부터 9일까지 Inter-Continental Hotel에서 개최되었을 때 외국에서 참가한 700명을 합하여 1,500명이 등록하였다. 참가한 외국사람들의 한결같은 얘기는 이번 학술대회가 모든 면에서 다른 곳에서 개최된 것에 비해 손색이 없으며 오히려 준비가 더 잘 되었다는 찬사를 아끼지 않은 사람도 많았다. 논문의 구두발표에 참여한 한국사람들의 수준에도 외국사람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라고 한다. 한국고분자학회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충분히 제 구실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1976년 본인이 창립위원장으로 한국고분자학회를 창립할 때를 생각하면 지난 20년간 한국의 고분자분야는 많은 발전을 했다. 고분자 관련 산업이 눈부시게 발전하였고 고분자를 전공하는 교수의 수가 크게 늘었으며 고분자학과가 있는 대학교 수도 많아졌다. 많은 사람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기업체 연구소를 비롯하여 대학이나 국가출연연구소에서 활발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0년전 고분자학회를 창립할 때는 화학분야 전반에 걸쳐 연구활동이 미미하였으며 고분자 산업 자체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여 산업체에서는 자체적인 연구는 물론 학계를 재정적으로 도울 수 있는 처지가 되지 못했었다. 고분자를 전공하는 대부분 사람들이 대한화학회나 한국화학공학회 회원이었으며 따라서 우리나라에 학회가 하나 더 생기면 학회지에 게재할 수 있는 논문수가 줄며 기업체로부터 경쟁적으로 후원을 받아야 하므로 기존의 학회운영이 힘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학회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논리로 1973년에 시도되었던 한국고분자학회의 창립은 무산되었었다.

그러나 열악한 연구환경에서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기에는 기존의 학회가 역부족이라는 것을 느끼고 1973년부터 학회 창립대신 운영되어오던 고분자연구토론회가 중심이 되어 다시 고분자학회 창립 준비를 하게 되었다. 그 준비기간 가장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할애했던 것은 기존 학회 회원들에게 새로운 학회 창립의 필요성을 이해시키는 것이었다. 타당성과 시기상조라는 면에서 많은 토론을 하였으며 학회 창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감지한 한 선배로부터 고분자학회가 종교단체나고까지 횡난을 받았었다.

고분자학회 창립에 뒷받침이 될 인사는 그 수가 많지 않았다. 창립총회 발기인을 구성할 때 산업계, 학계, 관계 및 정부관련 연구소를 모두 망라하여 선정한 57명 중에는 절반이나 되는 발기인이 기업체의 임원이었고 직접 고분자관련 연구를 하는 사람은 박사학위를 받았으면 모두 참여했다. 1976년 10월 8일 한국과학원(홍릉에 위치한 현 한국과학기술원 서울분소)의 2호관 대강의실에서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고분자학회 창립총회를 가졌으며 57조로 구성된 정관이 인준되고 학회명칭을 “한국고분자학회”라 하며 영문으로는 “The Polymer Society of Korea”라고 가결하였다. 고성좌경박사님을 회장에 모시고 고이형규박사님과 김정섭박사님을 부회장에 그리고 노익삼박사님을 간사장으로 모시기로 총회에서 결의하였다. 마석일교수(서울농대, 현 인하대), 이동주교수(인하대) 및 정진철박사(KIST, 현 포항공대)의 학술강연회를 가지면서 새로운 학회가 시작되었었다.

한국고분자학회에서 발간한 학회지 창간호를 보면 학회지 명칭을 “폴리머”라 하고 영문으로는 “Polymer(Korea)”로 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었다. 학술지의 명칭 특히 영문명칭은 기존의 “Polymer”지와 구별하기 위해 (Korea)를 같이 쓰기로 했지만 미국 화학회의 초록집에는 “Polimo”로 등록이 되어 아쉬웠었다. 제 1회 간사회의 회의 내용을 보면 간사들의 의욕적인 사업구상을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매월 잡지를 발간하고 정회원을 500명 이상을 확보한다는 것이었다. 학회 운영의 기본틀이 착실히 자리잡혀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976년 10월부터 1977년 12월까지의 15개월간 학회 예산이 9백만원이었고 정회원이 303명이며 학생회원이 38명이고 정회원의 회비는 연 3천원이었었다.

1977년 3월에 창간한 학회지 “폴리머”는 뉴스, 논문 및 총설을 함께 게재하는 종합지로서 두 편의 논문이 실렸고 그 해는 6호까지 발행되었었다. 1977년에 게재된 총 논문수가 13편이었다. 같은 해 5월에 KIST에서 춘계정기총회 및 학술논문발표회를 가졌었는데 6일과 7일 각각 6편과 8편의 연구논문이 발표되었었다.

1986년 창립 10주년을 맞이한 한국고분자학회는 지난 10년간 대학교 교수와 정부출연연구소 연구원으로 구성된 간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매년 6회 정도 “폴리머”지를 발행하고 있었고 연 2회 학술발표회를 개최하면서 명맥을 유지해 왔었다. 창립 10주년 기념강연회를 1986년 10월 16일 엠버서더호텔(현 노보텔엠베스터호텔)에서 개최하였고 일반논문이 80편, 국내와 외국에서 초청된 강연은 각각 6편과 8편이었다. 고분자관련 연구가 국내에서 상당히 활성화된 것을 쉽게 감지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1989년 “IUPAC Polymer Symposium Seoul '89”를 유치하므로써 한국고분자학회가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989년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롯데호텔에서 개최하였으며 국내에서 509명, 외국에서 223명으로 총 732명이 참석한 성공적인 국제학술대회였다. 논문수는 20개국에서 247편이었고 특별초청강연 3편, 5개 분야에서 초청강연 28편, 일반강연 169편, 그리고 포스터가 47편이었다.

1989년에는 “폴리머”지의 발행회수가 10회나 되었고 게재할 논문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였으므로 1990년부터는 “폴리머”지를 논문지와 뉴스지로 분리하여 논문은 “폴리머”지에만 게재하고 뉴스와 총설은 “고분자과학과 기술”지에 실기로 하면서 새로운 뉴스지가 등장하였다. 그러다가 외국사람도 쉽게 읽을 수 있는 논문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1993년부터는 “Korea Polymer Journal”이라는 영문 학술지를 발행하기 시작하였다.

지난 4월 19일 동국대학교에서 개최한 1996년 춘계총회 및 학술발표 대회에서는 720여명이 참석하고 연구논문은 251편이 발표되었으며 그 중에서 구두발표가 94편이고 포스터가 157편으로서 논문수에 비해 발표장소가 부족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하였다.

IUPAC MACRO '96 SEOUL에는 국내에서 800명과 국외에서 700명, 총 1,500명이 참가하는 명실상부한 국제학술대회로서 구두발표 논문이 초청논문을 포함하여 566편이었고 포스터가 564편으로 총 1,130편이 발표되었다.

한국고분자학회는 1994년 및 1995년 학회 회비를 낸 회원을 기준으로 회원수가 1,720명이며 연 두 번의 학술발표회가 있고 세미나 등 다섯 번의 행사가 있으며 세가지의 간행물을 발간하고 1996년도 예산이 2억 7천여만원이 되는 건실한 학회로 자리를 잡았다. 정규적인 국제행사로는 일본고분자학회와 신진과학자 교류를 하고 있고 중국과는 한국고분자공동심포지움을 개최하고 있다. 내년엔 “5th Pacific Polymer Conference”를 10월 26일에서 29일까지 경주 현대호텔에서 개최할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의 발전은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고분자분야도 크게 공헌을 하였다. 예를 들면 고분자물질의 생산량이 이제 연간 500여만톤으로서 국민 일인당 100 kg이 넘는 선진국 수준이 되었고 고분자학파가 있는 대학이 16개 대학에 달하며 국내외에서 많은 젊은 박사학위 소지자가 배출되어 국내에서 활동중이며 많은 연구논문이 기업체 연구소에서 발표되고 있다.

한국고분자학회는 양적인 면에서는 객관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였다. 이제 새로운 도약의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본다. 국제 수준에 걸맞는 연구활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국제학술대회에 plenary lecture로 초청받을 수 있는 과학자의 배출이 절실하다. 누구도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연구분야를 개척할 인재가 양성되어야 한다.

연구활성화를 위한 당면과제는 연구비의 확보이다. 국가 재정으로 보아 모든 과학자에게 충분한 연구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무리이지만 현재 연구비 관련 국가예산은 경쟁대상국에 비해 부족한 것은 사실이며 따라서 정부가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이다. 연구는 한 분야를 깊이 파고들므로써 유익한 결과를 얻는다는 사례는 수없이 있으며 정확한 기준에 의해 선정된 연구원에게 지속적인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정부가 또한 조성해야 할 것이다.

연구원 구성원도 오히려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교수가 학생들과 후박사들로 구성된 연구팀만 가지고 일을 할 때 새로운 연구발상은 거의 교수가 제시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교수의 창의력이 그 연구팀의 연구수준의 한계가 될 것이다. 만약 후박사보다 연구경력이 많은 사람들로 구성된 연구팀이 있을 때 연구팀장의 능력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의 연구가 수행될 가능성은 크다. 영국, 독일, 불란서 및 일본 등의 대학교 연구실에는 연구경력이 많은 박사학위 소지자가 교수와 한 팀이 되어 연구를 하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나라 교수들이 이들과 경쟁하여 앞선다는 것은 현 상황에서는 아주 힘든 일이라 생각된다. 우리나라 교수가 외국 과학자와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연구는 산업을 발전시키는 기초가 되는 것은 물론 음악이나 문학과 같이 사회가 문화의 일부로 받아들여야만 진정한 발전이 있다고 본다. 과학자는 창의적인 발상을 항상 추구해야 하며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연구는 어디까지나 연구원이 하는 것이고 고분자분야를 연구하는 연구원이 연구에 최선을 다할 때 한국고분자학회는 그 몫을 제대로 하게 될 것이다.

한국고분자학회가 지속적으로 발전되기를 기원한다.